



KOSPI200 정기변경 Quick Screen, 주목해야 할 동향

1. KOSPI200 정기변경

- KOSPI200 지수 정기변경은 12/14(목)에 리밸런싱. 편출입 종목은 11월 중하순 발표. 10월말까지의 시가총액,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결정..
- 편입 후보군은 7종목. 소재 섹터는 포스코퓨처엠 GICS 변경 관련 3종목 편입 예상.
- 산업재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 건강관리에서는 덴티움 편입. 자유소비재에서는 영원무역홀딩스의 리밸런싱 효과가 클 것.

KOSPI200 정기변경 편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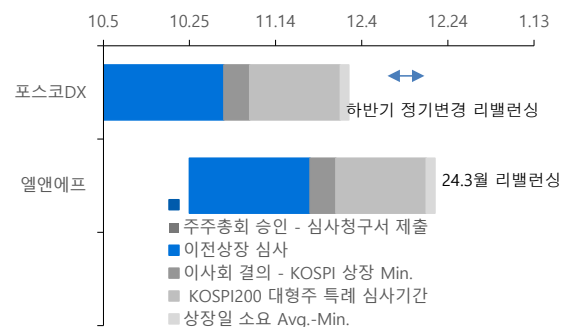
Code	종목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A267260	HD 현대일렉트릭	830	4.32	3.54
A006740	영풍제지	713	0.26	3.30
A002710	TCC 스틸	473	3.18	3.60
A145720	덴티움	401	5.62	3.54
A006110	삼아알미늄	370	5.44	2.46
A009970	영원무역홀딩스	249	23.39	2.34
A003620	KG 모빌리티	219	2.26	1.44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OSPI 이전상장 특례편입, 개정 이슈는 주목 필요

- KOSDAQ 이전 상장 관련, 포스코DX의 하반기 정기변경 리밸런싱일 수시편입 가능성은 'Mid'. 실패 시 24.3월 편입.
- 엘앤에프는 시가총액 요건 미달. 충족하더라도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24.3월 편입될 것.
- 최근 거래소 현업 의견 청취 관련, 정기변경 개정 가능성 이슈는 주목 필요.

포스코DX의 12월 편입 가능성은 'Mid'. 엘앤에프는 시가총액 요건 충족이 우선. 기간은 24.3월 편입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200 정기변경

하반기 KOSPI200 지수 정기변경의 리밸런싱은 12/14(목)에 진행된다. 대상 종목은 11월 중하순에 발표되지만, 종목 편출입은 10월말까지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정기변경 편입 후보군은 7종목으로 추려진다. 소재 산업군에서는 3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산업군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최근 포스코퓨처엠이 GICS 변경으로 산업재로 이전한 영향으로 평가한다.

산업재 산업군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이, 건강관리에서는 덴티움의 편입될 것으로 본다. 자유소비재에서는 2종목 편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중 영원무역홀딩스는 편입 관련 선반영이 낮아, 상대적인 리밸런싱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한다.

[표1] KOSPI200 정기변경 편입 예상

Code	종목	산업군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비중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A267260	HD 현대일렉트릭	산업재	192	23,467	0.13	830	4.32	3.54	0.8	-3.3
A006740	영풍제지	소재	2,763	21,614	0.11	713	0.26	3.30	-3.9	95.8
A002710	TCC 스틸	소재	149	13,133	0.08	473	3.18	3.60	-10.9	24.3
A145720	덴티움	건강관리	71	11,323	0.06	401	5.62	3.54	-14.9	-33.4
A006110	삼아알미늄	소재	68	15,065	0.06	370	5.44	2.46	2.4	-2.9
A009970	영원무역홀딩스	자유소비재	11	10,649	0.04	249	23.39	2.34	5.4	-0.9
A003620	KG 모빌리티	자유소비재	97	15,200	0.04	219	2.26	1.44	-7.8	4.9

지수 명대로 200종목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7종목이 편출될 것이다. 최근 주가부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편출 리스크가 존재하는 종목은 선제적인 비중축소가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표2] KOSPI200 편출 예상

Code	종목	산업군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비중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A294870	HDC 현대산업개발	산업재	16	6,650	-0.04	-228	-14.07	-3.43	-2.1	-11.2
A057050	현대홈쇼핑	자유소비재	6	4,938	-0.03	-170	-26.28	-3.43	-6.1	-9.2
A003850	보령	건강관리	75	6,931	-0.03	-167	-2.22	-2.41	11.7	24.4
A020000	한섬	자유소비재	14	4,431	-0.02	-147	-10.49	-3.31	-8.7	-20.0
A013890	지누스	자유소비재	10	3,950	-0.02	-133	-13.66	-3.37	-19.6	-21.9
A284740	쿠쿠홈시스	자유소비재	7	4,577	-0.01	-83	-11.25	-1.81	-8.1	-14.1
A003240	태광산업	소재	4	6,235	-0.01	-79	-19.00	-1.26	-7.3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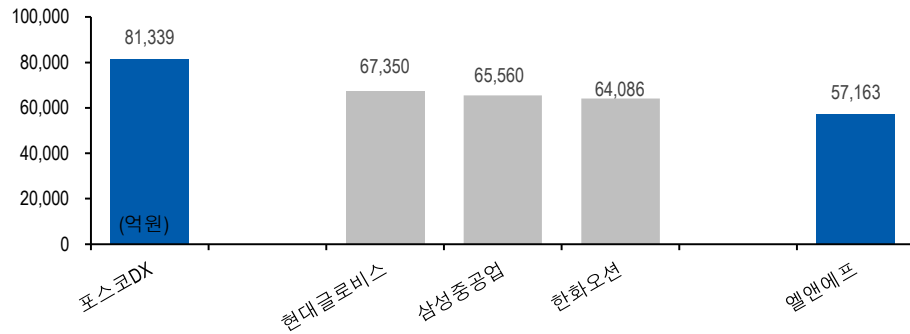
2. KOSPI 이전 상장 특례 편입

KOSDAQ 이전 상장 관련, 리밸런싱 효과는 다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포스코 DX와 엘앤에프는 최근 KOSDAQ 상장폐지와 KOSPI 이전상장 추진을 결의했다.

양사는 정보기술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다. KOSPI200 정기변경 특유의 산업군 버퍼를로 대형주 특례편입이 아니면, 해당 산업군의 직접적인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대형주 특례편입은 (이전)상장일부터 15거래일 간 시가총액이 KOSPI 보통주 종목의 50위 이내여야 편입될 수 있다. 현재 시가총액 수준으로만 보면, 포스코DX의 특례편입 가능성은 무난하지만, 엘앤에프는 기준이 되는 한화오션의 시가총액을 하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필요해 보인다.

[차트1] KOSPI 이전 상장 관련, 포스코DX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만, 엘앤에프는 기준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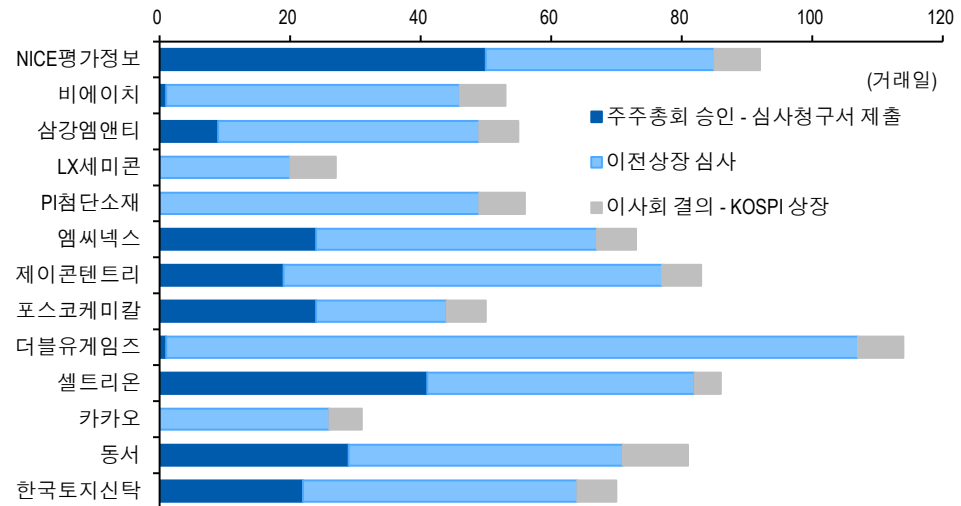


시가총액 수준을 충족하더라도 포스코DX의 하반기 정기변경(12/14 리밸런싱) 적용 가능성은 'Mid'로 판단한다. 실패 시, 24년 3/14일 리밸런싱될 것으로 판단한다. 엘앤에프는 24.3월 리밸런싱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양 사 모두 자기자본, 매출액, 세전사업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전 상장 관련 질적심사가 배제된 Fast Track 제도로 상장심사는 45 거래일에서 20거래일로 단축될 수는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1) 해당 회사의 심사청구서 제출, 2) 이전상장 심사의 소요기간은 더 경과될 수 있다. 또한 16년 이후 이전상장이 승인된 13종목 중 Fast Trak이 적용된 종목은 포스코퓨처엠과 LX세미콘이 유일하다. 또한 이전 상장 종목들의 거래소 승인 이후에도 KOSPI 상장일까지는 평균 6거래일이 소요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차트2] 이전 상장 종목들의 청구서 제출, 심사기간, 실제 이전 상장 소요일 등을 감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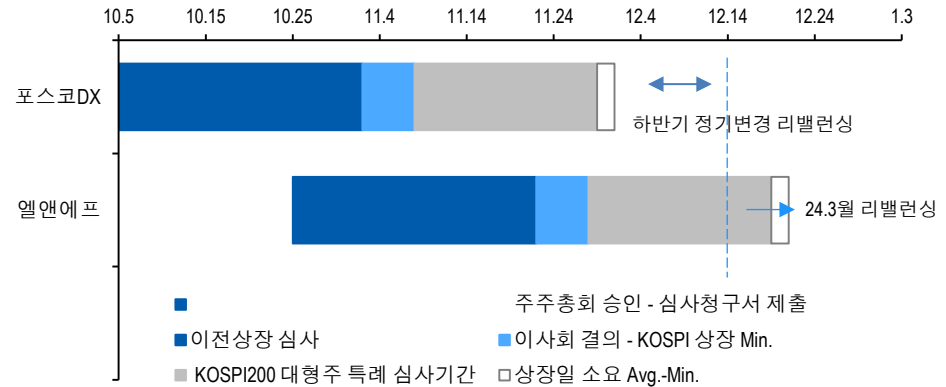
포스코DX, 엘앤에프의 주주총회는 각각 10/5일, 10/25일이다. 주주총회 승인 직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Fast Trak을 적용받은 LX세미콘 심사의 최단기간과, 상장기간이 가장 짧았던 셀트리온의 4거래일을 적용하였다.

과거 종목 Case에서 더 판단할 부분은 대형주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15거래일이다. 양사의 심사대상기간은 하반기 정기변경 심사일(10월말)을 경과했기 때문에, 수시변경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물옵션 결제월(3,6,9,12월) 만기일에 리밸런싱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엘앤에프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4.3월 리밸런싱 적용이 명확해진다.

포스코DX의 상장심사 청구가 최단 기간이 될 경우, 하반기 정기변경 리밸런싱과 인접해 있다. 정기변경에 통합 적용할지, 짧은 리밸런싱 기간을 감안해 24.3월 수시변경에 적용할 지는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나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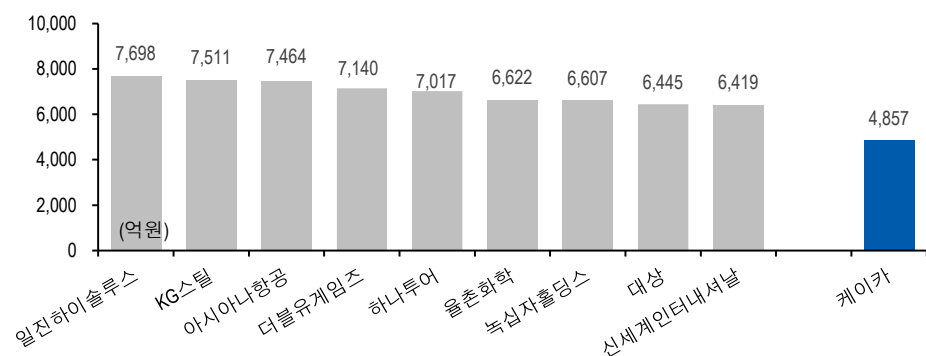
[차트3] Fast Track과 최단 기간 상장일을 감안해도 엘엔에프는 24.3월 편입 가능. 포스코DX는 거래소 판단에 따라 12월, 24.3월 편입 가능성이 양분될 것.



다만, 포스코DX가 KOSPI200에 편입된다고 해도 최근 거래수준 대비 리밸런싱 효과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KOSDAQ150 편출 관련 선반영과, 8월 편입 실패에 이어 11월 MSCI 정기변경 편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간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수요의 Exit 등도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사가 편입된다면, KOSPI 이전상장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최하위 종목이 편출될 것이다. KOSPI200 정기변경 편출 종목군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케이카의 편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차트4] 포스코DX의 수시 특례편입 시 편출 종목은 현재로서는 케이카 가능성이 높은 상황.



[표3] 포스코 DX의 KOSPI200 특례편입 시, 리밸런싱 수요

Code	종목	구분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비중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A022100	포스코 DX	KQ150 편출	4,041	81,339	-2.23	-364	-0.09	-0.45	-8.1	202.4
		K200 편입			0.27	1,659	0.41	2.04		
A381970	케이카	K200 편출	14	4,857	-0.01	-82	-5.80	-1.69	-15.6	-31.6

3. 정기변경 개정 관련 동향은 주목 필요

최근 거래소는 지난 9/21일 KRX 지수 방법론 개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동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MSCI 정기변경처럼 극단적 가격인상, 거래대금이 아닌 유동시가총액 기준 유동성 판단 등이 시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사안은 지수 컴파일러의 라이선스가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정기변경에 적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기변경 주기와 편입 기준이 개정된 19년 당시에는 1주일 간의 공개 의견수렴 과정이 존재했고, 해당 절차는 당시 하반기 정기변경 발표 이후에 진행된 점에서 관련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볼 이슈일 것이다.

[표4] 19년 정기변경 개정 당시 소요 절차

구분	
의견수렴 기간	19.11.18~11.25
개정일	19.12.11

다만, 정기변경 관련 개정 가능성을 본다면 이전 추종자금이 지수 구성 Logic 상 편입했던 종목들의 내년 상반기 편출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동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거래대금이 낮은 지수 구성종목은 편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수요의 조기 반영 측면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차트5] 지수 구성 Logic 상 편입이 유지되었던 종목의 상반기 편출 리스크 관련, 조기 반영 가능성도 고민이 필요.

